반전 · 반자본주의 노동자 운동

다함께

2007년 6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www.alltogether.or.kr | atgmail@nate.com

비정규직 차별에 맞선 정규직 · 비정규직 단결의 모범

뉴코아 · 이랜드 공동 투쟁에 승리를!

7월 1일 비정규직 악법 시행에 맞선 투쟁의 선봉에 선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이 유통노동자 최초의 점거 봉쇄 파업이라는 통쾌한 전진을 시작한지 이제 일주일이 넘었다.

지난 1주일 동안 우리는 곳곳에서 통쾌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뉴코아 평촌점 · 동수원점 · 인천점 · 야탑점 · 일산점, 홈에버 면목점 · 야탑점 · 일산점 등에서 매장이 점거 · 봉쇄되고 매출이 중단됐다는 소식 말이다.

이런 투쟁은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보여 주었다. 그동안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서서 퉁퉁부은 다리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일해 왔다. CCTV와 '모니터링 요원'에게 감시당하며 일해 왔다. 기분이 안 좋거나 집안에 나쁜 일이 생겨도 무조건 억지 웃음과 친절을 강요당해야 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에 박성수는 83억 원의 주식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고 1년에 십일조로 130억 원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묵묵히 복종과 고통을 참아오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서자, 뉴코아 · 이랜드를 지탱하고 매출을 늘려 온 것이, 박성수에게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 준 것이 누구인지 분명해졌다. 또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을 사용하면 뉴코아 · 이랜드의 매장들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 '유통을 멈춰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박성수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불을 지른 사람이 불을 끄려고 출동한 소방차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졌다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성수가 대량해고와 외주용역화라는 범죄를 저질러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투쟁

더구나 저렴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이다. 전체 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고객과 그 가족들도 비정규직이 많다. 그런데 비정규직 악법의 시행의 선두에 선 박성수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야 말로 '고객의 불편'을 낳는 일이다. 하

》 뒷면으로 이어짐

》 앞면에서 계속

루 쇼핑을 못하는 것은 일시적 '불편'이지만,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를 쓰는 것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불편'이다. 이 때문에 고객들 중에서 "당신들을 이해한다"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사실 박성수가 비정규직 1천 명을 해고해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1백억 원 정도이다. 이것은 박성수의 주식배당금과 십일조 헌금을 합친 것보다 적은 돈이다. 그러나 박성수는 용역깡패를 동원해 여성 노동자들을 폭행하면서 대량해고하는 길을 택했다. 이런 박성수가 교회에서 "내 손으로 부당해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간증했다는 소식은 정말 놀랍다. 하느님이 있다면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이 위선적인 거짓말쟁이를 두고봐선 안 된다.

희대의 '개혁사기꾼'인 노무현이 박성수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지난 1주일 동안 노동자들은 용역깡패와 경찰의 '환상적인 팀웍'을 목격했다. 이들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노동자 투쟁을 막아섰다.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박성수의 직무급제가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변칙"이라며 두둔했다. 심지어 어제(6월 29일)는 마포서 경찰이 사복을 입고 파업 지지자인척 대열 속에 몰래 숨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왔다는 것도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와 경찰은 박성수의 충실한 '개'가 된 것이다.

박성수와 노무현과 이상수가 하나가 되어 더러운 탄압을 가하고 있다면,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 악법 시행과 전국적인 비정규직 대량해고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투쟁이다. 이 투쟁은 한미FTA '묻지마' 추진 속에서 한미FTA가 낳을 끔찍한 미래에 맞선 저항의 대안을 보여주는 투쟁이다.

지금 단결해서 단호하게 투쟁하고 있는 뉴코아 ·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눈빛 속에서, 어깨 위에서 노동운동의 희망과 미래가 떠오르고 있다.

단호한 투쟁의 확대와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뉴코아 · 이랜드 파업이 장기화되고 투쟁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박성수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다. 박성수는 자기가 무시해 왔던 노동자들이 이처럼 단호하고 대담하게 투쟁에 나설 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용역깡패까지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추악한 본색만 드러내 주었다. 더구나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도 박성수에게는 부담이다. 정규직 · 비정규직의 아름다운 단결 투쟁을 '노동귀족'이나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도 박성수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직무급제로 분열을 노렸지만 직무급제가 '가짜 정규직'이고 고용 · 임금 차별이 여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구나 직무급제 신청자 중에서 40%가 탈락했다. 박성수는 직무급제를 모집하면서 "홈에버의 가족을 모집한다"고 광고했는데, 비정규직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심코 드러낸 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체념하거나 직무급제에 속지 말고 노동조합과 단결 투쟁 속에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 박성수는 이랜드와 뉴코아를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한 쪽을 먼저 타결짓고 나머지 한 쪽을 고립시킨 다음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 후에는 나머지 한 쪽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뉴코아, 홈에버, 2001아울렛, 이랜드 모든 노동자들이 흔들림없이 공동 투쟁하고 공동 타결한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의 단결된 대오에 틈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 박성수를 돕는 것이다.

투쟁적인 노동자들 속에서 '한 매장을 집중해서 무기한 점거해서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맞는 말이다. 그런 투쟁은 뉴코아 · 이랜드 투쟁을 전국적인 초점으로 떠오르게 할 것이고, 여론의 더 큰 주목을 받게 할 것이다. 점거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고 연대가 강력하기만 하다면 경찰력 투입도 쉽지 않을 것이다.

공동 투쟁 공동 타결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16개 산별노조가 뉴코아 · 이랜드 투쟁을 총력 지원하기로 결의했고, 비정규직 관련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약속은 반드시 행동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집중 연대 행동의 날을 7월 8일로 잡은 것은 아쉽다.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서비스연맹 지도부도 적극적인 연대와 불매운동 등을 결의하고 있다. 불매운동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연대 집회, 연대 파업 건설보다 우선이 돼선 안 된다. 박성수의 돈 줄을 막아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이기 때문이다. 미조직된 대중이며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 호소는 이것보다 그 효과가 떨어지고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마련이다.

비정규직 악법 시행의 선두에 서있다는 점 때문에 박성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편도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비정규직 악법을 무력화하고 대량해고 물결을 저지하기 위해 뉴코아 · 아랜드 파업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지도부는 강력한 연대 집회뿐 아니라 연대 파업 건설도 시작해야 한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주간 〈맞불〉 을

정기 구독 하십시오

〈맞불〉은 '다함께'가 발행하는 주간신문입니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계좌 번호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인터넷에서도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unterfire.or.kr